

<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

출애굽기14:13,14 / 새찬송가 210 (통일 245) 시온성과 같은 교회

1. 출애굽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 중 가장 위대하고 극적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구약의 역사 중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뒤따라 추격하던 애굽의 군병들이 홍해에 수장됨으로써 완성됩니다. 이는 신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역사가 인간의 그 어떤 도움 없이 이루어졌듯이 인간의 구원역사도 오직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그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 바로의 권력을 무너트린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거부했던 바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직접 내리신 열 가지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2.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역사와 달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우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결과 즉 구원의 최종 승리에 대해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기는 자(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들 중)’ 라고 하신 것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십니다(시24:8). 우리는 하나님의 싸우심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출14:14).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즉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출14:13).

하나님은 악의 세력과 싸우실 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애굽과 싸우실 때는 구름을 동원하셨습니다(출14:15-20). 그리고 바람을 사용하셨습니다(출14:21-30). 이 싸움은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결이나 모세와 애굽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고 실제로는 만물을 수단 삼으신 하나님과 애굽의 대결이었습니다.

3. 우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악과 싸워주셔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실상은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삼상 17:44,45).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블레셋의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그가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나아간 점입니다. 바울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우며 자신의 생을 보냈습니다(딤후4:6-8). 바울은 선한 싸움을 인생 끝 날까지 하였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딤후6:12).

선한 싸움이란 주님이 친히 싸우시기 위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가만히 있고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싸움, 그리하여 주님이 친히 나의 구원을 위해 악의 세력과 싸워주시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먼저 죄와 싸워야 합니다(히12:4).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싸우는 처절한 전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싸워주실 때 내가 죄를 이기게 됩니다. 질병이란 악과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낫게 하시려고 친히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 질병과 싸우시면서 고난의 피를 흘리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때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내가 고침 받고 강건하게 됩니다.

또 저주의 문제와도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저주의 문제들과 싸우시며 피를 흘리셨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저주의 문제들과 싸울 때 주님께서 싸워주시고 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는 사망이라는 악한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고전15:26).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망과 싸울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이 싸움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인지를 분별하고 확신한 다음 주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합니다.

<적용&실천>

나는 싸워보지도 않고 죄나 질병 혹은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 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싸워주시는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고백하며 잠잠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